

만성리

1: 일단은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연령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2: 저 66년생이니깐 59세 우리 나이로 한국 나이로 60

1: 대나무 산업의 종사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2: 종사 기간을 이제 저는 부모님이 하셨어요 부모님이 하셨어요.

부모님이 하셨어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중학교 때까지 엄마 일 도왔었고 이제 80년 후반 중 후반에는 죽세공예가 이제 사양 산업이었었던거요.

그때는 이제 플라스틱이 많이 나와서 엄마가 부모님들도 그 바구니를 안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일손을 도울 일이 없었죠.

직업을 전향하셨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중학교 때까지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걸 어른이 된 다음에 제가 지금 지금 한 15년 됐거든요.

다시 담양 고향으로 왔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15년 정도 됐죠.

와서 다시 15년 정도 하고 있어요.

1: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나무 산업에서 참여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2: 네 저는 이제 대나무 공예 쪽에서도 제가 이제 분류하기에는 죽세공예 쪽 그러니까 대나무 공예는 포괄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대나무 하면 원통이잖아요. 원통으로 원통을 그대로 이용해서 만드시는 분이 계시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온통이 아니고 그걸 다 세공을 해가지고 잘게 이제 쪼개고 이제 훑고 해서 그런 공정을 거친 다음에 만드는 세공 쪽을 저는 하죠.

죽세공예가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저는 죽세공예 쪽으로 하고 있죠.

1: 그럼 저렇게 된 거를 이렇게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저것도 직접 원통을

2: 직접 가공하죠. 가공해서 그러니까 원자재 대나무의 원자재를 가공을 해서 내가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가공을 하는 거죠.

이제 완성된 물건을 생각하고 가공을 해서 거기에 맞게 가공을 한 다음에 이제 만드는 거지

1: 그럼 조달 받는거는

2: 조달은 받지 않아요 그래요. 직접 가공하죠. 생산은 그러니까 대나무 생산은 안 하는데 가공은 직접 하죠

1: 원통을 이제 직접 자르고..

2: 네

1: 그러면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서 원자재는 주로 어느 경로를 통해서 조달하고 계십니까?

2: 저는 이제 여기는 공방이고요. 작업장이 또 따로 있어요.

작업장 옆에 이제 대나무 발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필요한 거는 이 베어서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까 그 대나무 총판 같은 데 가보셨잖아요.

거기는 대나무를 담양 것만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다 가져와요.

맹종죽이나 뭐 이러면 여기 담양에 냉동죽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큰 대나무들은 이제 갖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맹종죽은 쓰지는 않아요.

그건 세공저기애(?) 쓰는 나무가 아니고 이제 저는 왕대나 분죽 같은 걸 쓰는데 그거는 이제 직접 이렇게 산에서 생산해서 그러니까 재배한 것을 바로 또 중간으로 베어가지고 이렇게 소비자 저 같은 소비자한테 바로 직거래로 넣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담양에는

1: 밭에서 이렇게 바로

2: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 경로를 통하면은 대나무가 상처가 나요.

그래서 내가 직접 그 밭에 가서 필요한 걸 이렇게 잘라서 가져오면 최상이예요.

그게 직접 길러서 이제 직접 해서 필요한 걸 가져오면 더 좋은데 그것까지는 안 되니까 중간에 대를 베어 갖고 오는 작업이 극한 작업이예요.

그게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 작업을 해오면 그분한테 이제 의뢰해서 이만한 직경이 5 6cm 이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면은 제가 필요한 그 대나무를 이제 이렇게 벨 때 많이 베지는 않아 그분들은 많이 배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굵기를 골라요. 우리 과일 선별하듯이 대나무도 다 선별하는데 내가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따로 묶어서 저한테 갖다 줘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하시는 분하고 하겠죠.

저를 제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분한테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조달을 해요.

그리고 이거 대나무는 아무 때나 조달하는 게 아니고 겨울에만 해야 돼요.

겨울에 조달해서 1년을 써요.

그러니까 벌써 물이 오르면 나무에 물이 오른 시기는 이미 영양분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제가 가공을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데 그 물이 올라버린 대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가공을 해 가지고 힘들게 만들어 놓으면 저게 오래 못 가요.

다 벌레가 먹어요. 영양분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벌레가 먹어서 가루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 옛날하고 다르게 기후 변화 때문에 뭐라고 하죠?

대가 옛날에는 있잖아요. 12월부터 한 2월까지 해도 너무너무 좋은 상태였는데 요즘은 막 빨리 물이 오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11월 지금 11월 한 말 정도나 12월 거기 그 정도에 제 채취한 걸 사요.

그래서 이제 낱두고 1년간 쓰죠. 예. 그렇지 않으면은 상품 가치가 떨어져요.

금방 벌레가 먹어요. 썩어 먹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직접은 아니지만 직접도 베긴 하지만 그 옆에가 큰 대나무는 없어요.

저희 집은 좀 이렇게 가늘어요. 새봄때 뜰 놔만 있어요. 길게 뜨는거 그래서 그렇게 주문해서 갖고 오죠.

1: 두가지 방법이신거죠 직접하는거랑 주문해서 떼어오는거랑

2: 그렇지만 시장에서 사지 않는다. 시장에서 사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보다는 상처가 덜 나요. 그렇게 하니까 바로 채취해서 그분이 내가 용도에 맞게 묶어서 바로 갖다 주시기 때문에

1: 대나무 원자재 조달 및 관리 과정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2: 이거 이거 조달은 이제 주문하면 되는 거고요. 직접 채취하는 과정은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니까 근데 이제 이걸 1년간 이게 보관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자연 보관을 하게 되면 이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마르잖아요.

수분이 날아가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수분이 너무 이게 날아가 버린 상태에서 가공을 하면 너무 힘들죠.

그럼 다시 또 물에다 불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자연의 상태로 이게 베어가지고 조금 조금 건조된 그걸 갖다가 이렇게 가공하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말라버리면 힘드니까 이제 저희들의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대를 보관할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자연 보관하게 되면 장마철에 또 대가 습을 막 좋아하잖아요.

대나무 습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빨아들여고 대가 저희들이 쓸 수 없게 막 검게 이게 썩 든다고 그래요.

까맣게 변해버리고 썩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미리서 이제 가공을 해요.

장마 되기 전에 가공을 해서 감아가지고 저는 이제 냉장고를 큰 걸 하나 샀어요.

그래서 거기다 넣어놓고 써요. 제일 좋은 거는 대나무 원 뭐 한 5m 7m 쪽 이렇게 냉장고를 길게 할 수가 없어서 그게 좀 한이긴 한데 냉장고 안에 넣어놓으면 그래도 그대로 보관이 되더라고요.

1: 냉장고요

2: 최근 그러니까 한 몇 년 안 돼요. 한 5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자연 보관하니까 여름에 장마철에 다 장마를 넘기는 대는 쓸 수가 별로 없어요.

다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

1: 그래서 이제 조달받는데는 어려움은 없지만

2: 조달은 1년에 한번이니까 그 시즌에만 딱 받고 보관이 어렵죠

1: 보관이 이제 어렵죠

2: 너무 어려워요 그거는

1: 그럼 이제 그런 어려움이 이런 대나무 산업 경쟁력에서 어떤 점을 미친다 생각합니까?

2: 미치죠. 많이 왜냐하면 대나무 산업이기보다는 저희는 가공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공을 하려면 근다고 해서 재료를 어느 시기에 다 해놓고 가공을 하면은 대를 가공해서 바로 만드는 게 만들기도 좀 용이하고 편해요.

그게 더 마르지 않은 상태니까. 그리고 모양도 더 예쁘게 나와요.

근데 이미 다 말라버리고 오래되고 상태가 그러니까 습도 없고 그러면 제품의 완성도도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필요할 때 그 일주일 전이나 한 달 전에 해서 그걸 가공해서 바로바로 쓰면 좋은데 이거는 겨울에 딱 그 시즌밖에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생산에서도 차질이고 완성도에도 차질이 미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많은 영향을 끼치죠. 그 재료를 빨리빨리 구입하고 쉽게 하면서 편하게 공수해다가 쓴다면은 아무래도 단가 면에서도 조금 더 낮출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미치는 영향이 좀 많이 있겠죠.

1: 그리고 그 아까 장마를 지나면 사용을 못한다 하셨는데 그럼 장마가 지난 뒤에는 제품 생산을 안 하시는 건가요?

2: 그러니까 아까 이제 미리서 장마가 되기 전에 가공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1: 그걸 이제 장마 기간 이후에 사용하는거예요?

2: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하고 예 이후에 사용하죠. 장마 이후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 장마 거쳤는데 지금 상태에서 대를 그러니까 그 재료 대나무 재료를 파시는 그분들은 그 중간 그분들은 담겨 있는 그분들은 진짜 그거 습이 이렇게 비가 오면은 덮어놓고 또 이렇게 비가 그치면 또 덮었던 거 걷어가지고 굉장히 그걸 많이 해야 되잖아요.

자연에서 그냥 비 맞든지 말든지 놔두는 게 아니라 또 비 안 맞은 데다 넣어놓더라도 습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또 이걸 어떻게 선풍기를 틀어서든 어쨌든 또 건조시켜야 되고 이제 이런 작업들이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그것까지 하면서 이 재료 이 제품 만들기에는 너무 수고가 많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냉장고를 준비한 거죠. 저온 창고를 그 점은 정말 애로 사항이에요.

그리고 탈색이 많이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변한 지 오래되면 그래서 대나무 하면 초록색인데 그 초록빛이 계속 할 수 있도록 누군가 연구를 한다면 ???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배워서 땅에 있을 때 생명력을 끊어서 그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깔들이 바뀌어가고 진짜 할머니 집에 있는 바구니 보면은 옷칠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옷칠하는 색깔들이 나오잖아 완전 찌한 간색 그거는 세월의 흔적이거든요.

시간에 노출됐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탈색이 된다고 변색이 되죠. 탈색은 아니고

1: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생산 과정에서 품질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대나무 하면은 습을 좋아해서 곰팡이 벌레가 잘 끊어요.

그러면 그걸 막으려면 뭔가 그 위에 도포를 해야 돼요.

칠을 하든지 제일 좋은 건 옷칠인데 그 옷칠은 손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산해서 이제 대나무니까 재료를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게 변색이나 충해 충 방지를 위해서 칠을 해야 되는데 그 칠도 전문가가 돼야지 이게 잘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제품이 또 내가 원했던 그 제품이 칠을 잘못해서 좀 버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 칠까지 완벽하게 해놓으면 좋은데 제일 좋은 거는 옷칠까지 하는 게 좋아요.

옷칠해서 보관해 놓으면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중간에 애로사항이 있죠.

옷칠까지 해서 보관 하기가 그리고 옷칠을 하게 되면 단가가 배에는 배 이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고가가 되기 때문에 또 판매할 때 팔리기는 하겠지만 이게 옷칠하기 전에는 5개 팔았다면 옷칠 해놓으면 한두 개 이 정도 가격이 너무 세지니까 그런 게 있어요.

1: 그러면 실제로 옷칠을 하시나요?

2: 옷칠한것도 있어요 그런데 옷칠이 저거 주업은 아니죠. 필요에 의해서 하는거지

1: 그러면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주로 어떤 유통채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2: 저희는 이제 여기는 담양 같은 경우는 저기가 있어요.

공인(?) 협회가 있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 협회가 다 저기(판매) 할 수 있는 저기 판매장 있거든요.

거기 공동 판매하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제가 블로그 전에 올려놓은 게 있었는

데 거기다 연락처를 넣어놔더니 전화 오고 온라인 기존에 또 디자이너들하고 작품을 좀 했어요.

근데 그 이제 소개 소개도 와요.

1: 현재 대나무 제품의 마케팅 및 홍보 활동에 주로 활용하고 있는 채널은 있습니까?

2: 채널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솔직히 주문와도 이걸 완전 저희는 완전 수공예라 많은 걸 생산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할 거라면 이제 저도 대량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한 가지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주문에 의해서 만드는 시스템이라 그렇게 홍보 이런 활동은 안 하고 있어요.

소개로 오고 또 필요하면 우리 저기 협회에서 물건 팔면서 또 이제 재고 또 뭐 하라고 하면 하고 그런 거지요

1: 아 통해통해하는

2: 네 마케팅 그 직접적으로 이제 매장이 있으니까 우리 단체 매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거죠.

홍보는 따로 안 하고 있어요.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품 판매 후에 고객 지원이나 사후 서비스 같은 거 하고 계시겠습니까?

2: 고객 지원 이제 그걸 사용하시다가 이제 뭐 파손이 된다거나 오래 사용 안 하고 사 가신 지 얼마 안 되면 언제든지 보내주시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보내주시기도 하고 여기 이제 나들이 겸 오셔서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1: 그럼 교환 서비스정도?

2: 이제 수리해서 드리고 수리가 안되면 바꿔드리죠

1: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현재 정부나 지자체의 대나무 산업 관련 정책적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전혀 없는데..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는 뭐 받은 적은 전혀 없어요.

코로나 전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대나무 ??? 협회로 공예인 협회로만 뭔가 디자인 개발 그런 건 있었는데 직접 없어요.

대나무 산업으로는 못 받았어요.

1: 그 정책 자체가 없는거죠.

2: 못 받았어 있었는데 모르지만 받지는 못했어요.

제가 알지 못했고 받지는 못했어요. 저는

1: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런 정보가 없었던 건가요?

2: 아니요. 그냥 대나무 산업으로는 찾아보려고 하지는 않고 이제 뭐 포장 있잖아요.

포장 디자인이라든지 왜 그러냐면 만들어 놔는데 애를 뭔가 뭘 포장을 해서 소비자한테 갈 때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지원받은 적 있어요

1: 포장관련해서

2: 네네 그거는 이제 대나무쪽은 아니었죠

1: 그러면 대나무 산업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체계는 잘 구축되어있다고 보시나요?

2: 아니요.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중구난방이죠. 왜 그러냐면 특히나 산업의 표준화? 이거 어떻게 표준화할 수가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대나무는 또 각자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크기도 그렇고 성질도 다 달라요. 애가 햇빛을 좀 더 맞았냐 어쨌냐 이것도 다 다른데 알 수가 없고 이제 안에 쪼개봐야 아는 거고 그래서 표준화는 이걸 잘 모르겠어요.

1: 그러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2: 이걸 공산품이 아니어서 이걸 잘 모르겠는데 나는

이거는 대나무

이건 생물이예요. 생물

이게 습하고도 관련돼 있고 햇빛하고도 관련돼 있고 그리고 걸로 보기에 대나무 성질이 좋을 것 같아도 쪼개 보면 그렇지 않고 이게 그래요.

그래서 잘 그 성질에 맞춰서 뭔가를 이렇게 저희가 필요해서 쪼개는데도 이게 나한테 안 맞는 성질일 때도 있어요.

너무 무를 때 그럴 때는 이제 버리는 거죠.

1: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따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같은게 있습니까?

2: 그건 잘 몰라요 이게 식물이라

1: 까봐야 아는거죠

2: 그쵸 겠보기에는 몰라요 이거 이제 굶기 이런건 알 수 있죠

1: 겠모습은 알지만?

2: 네 굶기로 알고 이게 좀 단단하겠다. 무르겠다는 대강하는거지 그거를 전문적으로 연구는 저는 안해봤네요

1: 대나무 산업 관련 정보나 데이터 접근성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2: 정보가 그렇게 저가 하는 이런 게 솔직히 제가 논문을 쓰게 된 이유도 뭐냐 하면 정리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찾다가 저기 일본 거 책 엄청 거기 근거로 해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담양은 문화재 선생님도 좀 계세요.

대나무 부채도 있고 찬빛도 있고 그런 채상장도 있고 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문화재청에서 이제 관련된 기록 남기는 그런 책들 외에는 개인적으로 만든 게 정리해서 누군가가 해놓은 책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저는 좀

담양 고향이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도 하셨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늦게 나이 늦게 학교를 가서 좀 정리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도대체 한국어 책은 도대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살려고 하니까 찾아서 보려고 하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관련된 거 좀 패턴도 정리해 보고 이제 처음으로 패턴을 정리했고 제가 이제 앞으로도 ??? 어떤 종류들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빨리 안 돼서 그러는데 이건 하나 정리해 놔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정보는 없어요.

다 이렇게 구전, 문화재 선생님, 명인 선생님들 옛날에 도제로 도제 제도 식으로 배워요.

우리가 근데 그걸 특별하게 딱 정리해서 이거 공식은 그렇게 없어요.

이게 공식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해보니까 아까 제가 규격화 이런 문제는 정의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재료가 대나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뤄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들도 딱 이거다 저거다 구체적인 거를 공식처럼 집어주지 못하는 건 그거 이유가 있지 않나 해봐야지 그게 감 같은 게 생기고 그러는 거지 공식은 그거지만 실질적으로 다를 때는 또 다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그런 정리들이 좀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정리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아 정리를 해놓고 후 이제 우리 건너서 우리는 엄마 아빠한테 보고 배웠는데 우리 아들 세대는 못 배우잖아요.

못 보잖아요. 저는 봤는데 어렸을 때 그럼 그걸 꼭 말로 해야 아는 게 아니잖아.

옆에 보면은 계속 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그 이론으로 알아가지고 이렇게 한다. 물론 빠리는 배우겠죠.

근데 이제 안 풀리는 점이 있을 건데 그 단계를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큰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보고 배운 세대고 현장에서 하면서 느낀 세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후대들 20~30대에는 못 봤어요.

그런 거를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달 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전수의 목적이 커요.

저는 이제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정리해 놓으면은 후대들이 그거라도 근거로 해서 따라 연결 다시 더 발전할 수도 있고 이제 기술이 이제 이제 다른 어떤 공학적으로 발전이 되면 아까 규격화? 그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해보죠.

1: 그러면 대나무 산업 분야에서 전문 인력 확보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2: 이거는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숙련 단계가 필요해요.

기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술은 아니고 기능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이게 단기간에 사람들이 많이 배우려고 와요.

박물관도 오고 오는데 이게 딱 보니까 쉬워 보여. 그렇게 막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 기능을 내 손으로 익힐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 한두 달 해서는 안 돼.

그것 때문에 하다가 그냥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재료 공수가 이렇게 이게 막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다가 그만두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막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 그러면 현장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교육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그거는 이제 제가 해보니까 아까 그 후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벌레가 먹지 않으면 저기 뭐죠? 울칠을 해놓으면 이게 오래 보관이 돼요.

그렇죠 옛날에 무슨 옛날 오래된 고려시대나 이런 그 이전의 물건도 바닷속에 잠겨 그 벌 속에 있었던 것들이 그대로 바구니도 발견되고 뭐 어쨌다고 그러는데 울칠한 것들 물건들은 그대로 이렇게 건지더라고요.

그렇듯이 대나무 자체만 가지고는 이게 오래 보관하기가 상품성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뭔가 여기 가공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칠하는 마감제 연구는 좀 해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돼.

1: 이런 교육 말고 다른 지원같은것도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2: 이제 그렇죠 이게 가공해서 만들기도 힘든데 그것까지 이게 막 대량으로 판매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지원해서 좀 교육도 시키고 뭔가 더 이렇게 상품 가치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옷 벗고 입는 것보다 옷을 입으면 더 예쁘잖아요.

그 옷에 그 저기 옷과 같은 역할이 칠이거든요. 마감 하는 칠 그래서 그거는 좀 더 교육 투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1: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대나무 육림 기술 및 가공 기술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2: 지금은 담양은 많이 발전됐다고 그러대요. 이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니까 아까 그 대나무 총판에서 인터뷰한 게 제일 제일 최신 정보일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게

1: 가공기술같은건 어떤..

2: 가공 기술은 이제 이걸 가지고 가공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기계 같은 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대나무 공예가 이렇게 통으로 해서 기계로 이렇게 절단해서 하는 제품이 있고 이제 저 같이 죽세 공예는 옛날이나 몇십 년 전 30년 60년 저희 선생님이 60년 하셨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이런 기계 이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다 이거 날를 쫓아가지고 칼을 2개 쫓아서 너비를 조정했다면 지금은 이렇게 첼로 직접 내가 필요에 의한 걸 만들어서 이제 이제 저기 이제 맡겨 갖고 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 용이해요.

편리해요. 편리하게 이거는 이제 수단으로 보조 수단으로 쓰는 거죠.

그런 것만 바뀌었죠. 재료 준비는 똑같아요.

1: 이런 재료 준비나 실제 기술은 똑같은데 기계만 바뀐거죠.

2: 똑같아요 과정도 똑같고

1: 여기 2번부터 다시 시작해 보자면 제품 다변화를 위한 연구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 다변화요. 기존에 있는 제품을 어떤 변화시키기는 이제 저희들 혼자만의 노력은 잘 안 되고요.

뭔가 이렇게 디자이너들하고 같이 협업하는 면은 조금 더 나아지더라고요.

1: 현재 진행하고 있나요?

2: 지금은 안해요

2: 확실히 디자이너들하고 협업하게 되면 그들은 좀 그쪽에 전문적인 저기가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근데 또 대나무 성질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현장에서 대나무를 가공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아무리 좋은 디자인이어도 여기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재료 그 특성상 보면은 그걸 이제 조인하면서 서로 변화돼 갖고 이제 완성되면 기존에 없던 디자인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1: 과거에 디자이너랑 협업을 했을 때에는 디자이너한테 연락이 오는 방법인가요?

2: 네 왜냐하면 대나무 공예를 이렇게 계속 전문적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걸 업으로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저희가 선생님이라고 모시는 선생님들은 기존에 있는 그 있잖아 디자인 있잖아요.

원래 만들었던 그 부분 그 부분에 기술적인 건 정말 좋은데 디자인적으로는 선생님들 연구도 안 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좀 파악을 해봤는데 그분들은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돼요. 속도는 엄청 빨라요.

그래서 많이 만드는 데 그분들이 지금 와서 디자인을 개발한다 어려운 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중간 세대들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좀 배우고 그러면서 다시 그러니까 연세가 많다는 거는 벌써 80대 70대 후반 80대 이러니까 그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신 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40대 중반 저희 이제 50대 이 정도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뭔가 취미로 시작했다가 이제 해볼 만하네. 이것도 돈도 조금 되네 뭐 이래서 이제 그렇게 달려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게 해결이 된 분들이라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 쪽도 옛날 거 말고 좀 우리 지금 시대에 맞는 걸로 아니면 옛날에는 바구니로만 썼지만 이제 그 바구니 용도가 아니라 바구니 용도로는 다른 것도 더 얼마든지 예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도가 아니라 이 디자인으로 다른 용도로 변형한다든가 그런 연구들은 지금 선생님 세대 70~80대 세대들은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중간 세대들이 그걸 좀 가능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20 30대들이 배우겠다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진짜 우리들이 생각 못하는 또 어떤 그런 걸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하여튼 간에

1: 그러면 아까랑 살짝 비슷한 질문인데 새롭게 개발되거나 시도 중인 제품 분야가 있으십니까

2: 제가 이제 대나무 이걸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제 퇴직을 하셨다거나 뭐 이런 분들이 뭔가 요즘은 그러잖아요.

나만의 물건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는 물건 직접 만들어서 내가 사용하는 물건 이런 것들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어요.

점점 이제 더 늘어나고 근데 그분들에게 맞춰서 뭔가를 직접 만들게 그러니까 재료부터 해서 쪽 이렇게 막 직접 재료 가공하고 서툴지만 만들어서 자기만의 어떤 완성품을 가지고 싶어 하는 그분들의 욕구를 제가 이제 지금 숙제이기도 한데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이게 쉽게 좀 할 수 있을까 아까 쉽지 않다 했잖아요.

그 재료 가공이 이게 재료 가공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올해 이제 60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생은 그런 전수 어떤 전수 목적이 있어요

이게 계승 발전시키는게 이제 제 몫이잖아요.

이걸 계승을 해서 발전을 시키려면 현대인들이 뭘 필요한지 거기에 맞게 제가 이제 뭔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마감하는 부분이 제일 힘들어요.

바구니 재료 준비가 30% 그리고 이거 몸통 만드는 조형 만드는 게 30% 마감 부분이 30%예요.

100을 놓고 본다면 완성할 때 그러면은 만들어서 재료를 가공해서 어렵게 가공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 마감 30%를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애가 쓰레기가 되냐 아니면 쓸 수 있는 물건이 되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때문에 여기 안에는 이제 칠도 들어가겠지만 그전에 마감 부분을 좀 쉽게 제가 이제 공정을 좀 이렇게 단축 단축시키든지 아니면 뭔가 대체제로 해서 마감을 하든지 연구를 해야 돼요.

그 부분은 제 숙제예요.

1: 그러면 기술 개발에 있어서 어떤 지원이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제쪽에서는 죽세공에 쪽에서는 기술 개발 같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재료 준비는 옛날부터 과거부터 했던 그것을 이걸 기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가치가 있다고 봐요.

희소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체할 수 없어요.

재료 준비는 이제 뭐 이렇게 좀 간단한 한 마디 정도는 뭔가 기계로 조금 이렇게 뺄 수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그 세공 이쪽 벽에 보시면 저 관은 저런 그러니까 대나무가 그 원통의 대나무가 저 실처럼 나올 수 있는 그 과정이거든요.

재료 준비가 저건 대체가 없어요. 대체제가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하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대체할 수 없는 거니까 기계로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없어지는 직종이 아니고 이거 계승하게 되면은 저는 계속할 수 있겠다 싶어서 다시 덤벼들었던 이유도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발의 저기는 없고 지원이나 협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개발. 어떤 기술 재료 개발은 계속 시간을 투자해서 개발하는 수밖에 없고 지원이나 뭐 이런 협력은 디자이너가 새로운 디자인을 좀 기존에 있는 디자인 말고 새롭게 현대인들이 원하는 그 어떤 디자인으로 바꿔서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마감제. 마감할 수 있는 그것까지 교육을 통해서 좀 직접 할 수 있도록 그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1: 그러면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대나무 원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2: 이것도 이제 아까 제가 데려온 원자재가 저희 같은 경우는 밖에 자연으로 보관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저희 군 차원에서도 어떤 대형의 어떤 대나무는 그대로 보관할 수 있는 대형 냉장 시설 공동으로 이거를 개인이 하기엔 너무 부담이 크니까 이제 공동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담양이 여기 대나무 특산물이잖아요.

많이 있어요. 대밭이 그러니까 그거를 쌀 수매하는 것처럼 그 적기에 딱 이렇게 받아들여서 수매해 가지고 딱 대형으로 넣어 놓을 수 있는 어떤 그게 마련되면 진짜 좋죠.

그래서 거기서 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따로 준비 안 하고 가서 굵기 얼마에 길이 얼마짜리를 사 와서 쓰면 집집마다 좋은 창고 길게 한다는 게 비용적으로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군 차원으로 해가지고 쌀 수매처럼 전체적인 걸 이렇게 받아들여서 소비자에게 파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1: 현재는 공급받을 때 하시는 노력 같은 게 그냥 아까 말씀하신 작은 밭이랑 연결된 부분에서 얻으시는거죠?

2: 네네네 사죠. 필요한 거 굵기 굵기로 사죠. 그래서 개인 개인 보관이죠.

그게 그냥 1년에 딱 한 번 잘하면 초기에 한 번 들이고 또 이제 물 오르기 전에 한 번 들이고 두 번 정도 들어요 대나무 그거는 1년을 써야 되니까

1: 그러면 생산 및 가공에 필요한 기계나 설비 도입 시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2: 이거는 다 개인 필요할 때 저기해요. 직접 맡겨야 돼요.

기계 하시는 분한테. 고가예요. 그러니까 싸지는 않죠.

이게 왜 그러냐면 대량으로 누가 쓰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했기 때문에 싸진 않죠.

비용 부담이

1: 개인적으로 맞춰야 돼서 비용적인 부분이

2: 그쵸

1: 그러면 인력조달 측면에서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2: 이거 돈 안 되기 때문에 안 와요. 안 해요. 하다가도 도망가요.

우리 아들 지금 36이거든요. 이거 이거 이거 하다가 있잖아요.

카페 하잖아요. 안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저기를 하면 만들면 뭐 또 팔리냐 수공예이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도 싸지 않으니깐 아 이쁘다 이런말은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이걸 직접 소비가 되지는 않죠. 가구 디자인과 나왔어요.

아들은 이제 이걸 이것하고 접목해 보려고 가구를 이제 연구했는데 가구에다가 어떤 이런 대나무의 어떤 패턴들을 좀 넣어서 가구를 좀 만들어보면 좀 특색이 있겠다 싶어서 했는데 안 하더라고

1: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 그러니까 아까 재료 제일 처음에는 재료 보관 그렇잖아요.

재료 가지고 특히나 이제 요즘 도시에 사시는 분들 라탄 공예가 유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스물몇 살 때 시집 가고 그럴 때 라탄 공예가 붐이 일어났어요.

그때 라탄으로 해가지고 화장대 식탁 뭐 해가지고 그때 좀 돈이 그때가 고가였거든요.

그래서 돈이 좀 있는 색시들은 그 일체 그냥 그 등각으로 해가지고 혼수 장만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시들어져가지고 근데 또 얼마 전부터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보니까 라탄 공예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쪽 일어나고 있다고 여기는 시골이잖아요.

시골인데 또 벌써 점포가 하나 두 개 생겼더라고요.

없었는데 그런 거 보면 그게 왜 그렇게 되겠어요? 재료 공수가 쉬워요.

수입해서 그냥 그 재료 그대로 써요. 수입산이 됐든 우리나라는 생산이 안 되니까 그 이미 2mm 두께 다 넓이 심지 다 이게 그대로 사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나무 공예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서 쓸 수가 없어 재료 공수가 더 어려워요.

그쵸 만드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널리 보급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대나무 이거를 축제공예를 하려면 대나무 가공을 먼저 해야 되니까 이 과정을 거쳐야 애를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했지 아까 개선해야 되는 거 그럼 그럼 개선해야 된다고 하면 이 재료를 어떻게 해서 빨리 많이 대량으로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점인데 이게 사람 손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죠?

대체제 대체제가 없어요.

1: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력들이 없거나 아니면 하다가 또 중간에 나간다 했잖아요.

그런 인력 관련해서는 개선 부분이 있을까요?

2: 인력 관리 이제 이제 저 이제 우리 담양에는 이제 이게 돈이 안 되니까 돈이 돼야 첫째는 먹고 살 수 있어야 이걸 계속하잖아요.

왜 그만두냐면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군에다도 이제 저는 계승자를 이제 이수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군에다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담양군에서 지원을 해줘 갖고 지원을 조금 줘요.

이제 계승자들에게 30만 원 주고 명인한테는 70만 원 주는데 박물관에서 교육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양성을 하는데 진짜 여기에 뜻을 두고 하겠다 하는 사람들 있죠.

젊은이들이나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용돈은 좀 돼야 이걸 계속할 수 있겠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준대거나 배우면서 내가 뭔가 용돈을 쓸 수 있는 그래야 시간을 전념할 수 있잖아요.

시스템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예산이 없어서 안 된대요.

근데 진짜로 이게 계승의 목적이 있고 계승을 시켜야 된다는 의지가 강하다면 시스템 자체를 바꿔서 일시적으로 그리고 저희 이제 이 5년 밖에 제한적이에요.

5년밖에 안 해요. 그러면 5년간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배우고 다 다른 자기 다른 직업으로 다 가버리는데 그건 예산 낭비라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배우겠다 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일주일이 아니라 매일 나와서 할 수 있게 배울 수 있게 그 장이 재료라든지 모든 공부라든지 다 제공을 해주고 의지만 있으면 와서 소속이 돼서 배워가지고 이게 그런 식으로 날마다 매일 해서 1년이 가면 기술이 향상되잖아요.

근데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질 않아 돈을 많이 줄 수가 없어 한 달에.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으로 하루로 국한되니까 일주일이 7일인데 하루만 하고 6일은 다른 직업으로 하면은 이게 본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모르죠. 단체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예산이 좀 풍부하고 그러면 진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계승한다는 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런 것 같아 그분들이 진짜 다 돌아가시고 없어버리면 아마 그때는 이제 늦게 뒷북 치듯이 늦게 이제 할 거라고 봐요.

늦게. 근데 이제 살아계셨을 때 이제 그렇게 진짜 연령도 좀 국한돼서 한 30대 20~30대로 딱 해서 돈도 더 많이 주고 날마다 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 일본보다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본은 제가 이제 일본을 한번 가봤어요.

거기는 거기도 학교라는 게 있더만요. 그래 갖고 학교 거기는 입학하면은 2년제로 운영을 하더만요.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계속 그 학교 식이니까 여기 가르치는 거죠.

선생님이 계시대요. 공무원이더라고요. 거기는 선생님이 명인을 공무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그냥 그거는 먹고 살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니까 그 젊은 친구들이 어찌겠어요 잘하지 그래서 그게 좀 다르더라고 그 점은 개선이 돼야지 인력 인력도 이제 확보를 하고 계승도 되고 뭔가 젊은이들은 젊은 지금 현 세대에 맞는 디자인도 나오겠잖아요.

그거는 좀 개선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직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도 근데 나중에 느끼겠죠.

1: 그럼 선생님의 계승자가 아까 말씀하신 지원금을 30만원..

2: 한 1년은 20만원 줬었고 4년은 30만원씩 받아요 근데 용돈밖에 안돼요 용돈도 안돼요

1: 달마다 주는건가요 아니면

2: 매월. 5년간. 담양이 그게 이제 그게 돼 있는데 이제 5년으로 딱 끊어져 버린다는 게 문제

가 되죠.

왜냐하면 이제 연장이 아니고 5년이 딱 졸업을 시켜버려 이수를 시켜버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뭐가 없어요.

제도가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시더라도

1: 그럼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도 지원금을 받나요

2: 받죠 70만원씩 85세까지

1: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2: 이거는 여기서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체계 구축 이거는 일단은 저희 축세공예를 저는 축세공예 쪽에서 이제 이제 말씀드리자면 재료. 재료 공수 재료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그래서 이제 기술은 있잖아요.

그쵸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은 있으니까 재료를 공수를 쉽게 해 그럼 이제 기술은 있으니까 가공을 해. 만들어. 그래서 이제 뭔가 마감도 내가 이제 마무리를 통해서 마감제를 내가 직접 칠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까지 해서 판매 이제 이런 것들은 공동으로 혼자도 이제 요즘은 인스타로 많이 팔아요 젊은 친구들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거를 개인 한 개인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또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제 이렇게 또 시장에 제가 이제 이 제품을 만들면 선생님은 다른 제품 이런 식으로 좀 분업이 돼가지고 제품이 좀 다르게 해서 이게 이제 또 단체가 돼서 매장에서 판매 직거래를 하든 이제 인터넷 온라인으로 하든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특히나 이제 여기서 뭔가 지자체에서 인정을 해 주는 마크 이제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게 돼가지고 붙여서 나가면 어떤 중간 마진은 통하지 않고 나간다면 생산자도 이익이고 또 지자체도 여기 어떤 특산품이니까 알리는 차원이 돼서 이익이고 그럴 것 같네요.

이거는 관리 차원 관리는 제가 말씀 다 드린 것 같아요.